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울면 신추리 상습 침수 해소

안기주 기자 | 승인 2026.03.1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여주이천지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여주이천지사(지사)가 이천시 울면 신추리 일원의 상습 침수 피해 해소를 위한 배수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0일 지사에 따르면 이번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신추지구(울면 신추리 일원)사업은 총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배수장 1개소($Q=6.0\text{m}^3/\text{s}$, 1,000mm×3대)를 신설하고 배수로 1조 1.84km 확장·정비 및 매립 8.10ha를 하는 완료할 계획이다.

우천 시 260.0ha의 내·외수가 청미천(지방하천)으로 배수되는 길목에 위치하며, 자연 배제 시설(배수문 2개소)에만 의지하는 상황으로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어 주민 불편이 이어지는 지역이다.

최종태 사장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추리 지역의 상습 침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배수 개선사업을 통해 농업 기반 시설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어석리처럼 시설하우스 중심의 고소득 시설재배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안기주 기자